

지구 지키는 '태권V' 생명 살리는 의료 로봇 내가 꿈꾸는 미래 로봇은?

17일부터 광주과학관 특별전 '로봇+'
로봇 축구·드론·레고 조립 체험도



만화 '태권V' 조형물과 축구 로봇(아래).

가까운 미래 인간과 함께할 '로봇'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만화 '태권V' 등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되살리고, 아이들에게는 로봇체험을 통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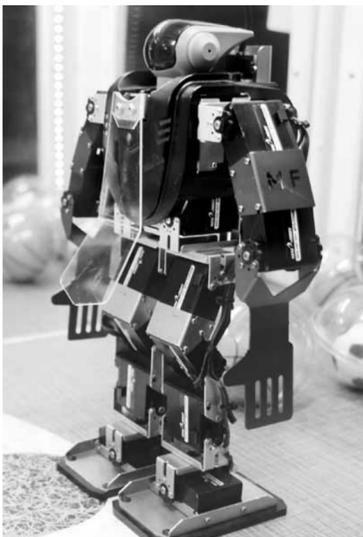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은 오는 17일부터 과학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로봇특별전 '로봇+'(Robot Plus)를 개최한다. 2017년 3월 1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최첨단 기술 집약체 로봇들의 전시는 물론, 체험기회를 제공해 인간과 로봇이 함께할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광주과학관과 목포대 로봇산업일자리창출센터, 한국문화박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아스카와전기(주), KAIST휴보랩 등이 참여해 로봇에 대한 다양한 용도 등을 배울 수 있는 5개의 존(zone)으로 구성했다.

우선 특별전 입구에 마련된 1존 프롤로그(Prologue)에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점차 인간을 닮아가며 진화하는 로봇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다. 로봇의 원리와 인간의 신체를 따라가고 있는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인간과 로봇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2존 'Dream+'는 만화 '태권V'를 포함한 다양한 로봇 캐릭터를 소개하는 공간이다. 지난달 '로봇 콘 테스트'를 통해 접수된 시민들이 직접 만든 모형 로봇 플라모델(Pla model) 등 다양한 로봇들을 전시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다.

3존 'City+'는 'Life with ROBOT'을 주제로 현재와 미래 인간의 삶과 함께하는 로봇들을 소개한다. 산업·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로봇들을 소개한다.



아이스크림 로봇과 산업용 로봇 '에어하키', 청소기 로봇, 공업용 로봇으로 유명한 '아스카와 전기' 등 인간의 활동을 대신하고 있는 로봇을 직접 보고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4존 'Enjoy+'는 'Fun with ROBOT'을 주제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약하는 로봇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축구·농구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직접 조작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으며, 이외에도 드론 우주전투와 로봇슈트, 가상현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5존 'Art+'는 로봇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레고 'We do'를 활용한 로봇만들기는 물론, 전자기와 로봇의 행동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아두이노(Arduino)' 등 간단한 프로그래밍 교육도 열린다. 단순히 감상하고 즐기는 전시가 아닌, 체험과 학습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해볼 수 있는 전시로 마련됐다.

특히, 특별전 '로봇+'의 교육은 테마형 과학교실인 'ICT 랩'에서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체험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필로그(Epilogue) 'Think+' 공간은 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화두를 던지며 전시를 마무리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로봇 '찰스'를 통해 로봇과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고 로봇과 인간의 삶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메시지 보드' 등이 마련됐다. 다가올 미래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로봇부터, 인간과 로봇의 다양한 대결도 소개한다.

또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공존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해볼 수 있는 정보들과, 로봇이 가져올 미래산업과 미래직업에 대해서도 들여볼 수 있다.

광주과학관은 로봇특별전 기간 전시 외에도 다양한 연계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로봇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을 통해 로봇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댄스 로봇, 마술로봇 공연 등 과학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로봇특별전 '로봇+'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http://www.sciencecent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구글 시각장애인 탑승 자율주행차 운행 성공

구글이 13일(현지시간) 동반자 없는 시각장애인의 단독 자율주행차(사진) 시험운행에 성공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사업 부문인 웨이모는 법적 시각장애인 스티브 메이헌이 이날 텍사스주(州) 오스틴에서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구글의 쥘리모양 완전 자율주행차에 탑승해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웨이모포스트는 "근 10년에 걸친 구글 엔지니어들과 직원들의 테스트를 거친 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확신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이헌은 "만약 당신이 누군가가 운전하는 차를 탔을 때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운전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듯이 자율주행차는 매우 훌륭한 운전자였다"고 말했다.

존 크래프치크 웨이모 CEO는 이번 시각장애인의 자율주행 테스트의 성공



에 대해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코스타 사마라스 교수는 "웨이모의 이번 시험운행 성공은 우버, 리프트,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차 시장 점유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상품 계산·포장 척척...日 편의점 로봇 등장

업체 측 "구인난 탓에 도입"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에서 직원의 도움 없이도 상품의 계산과 포장이 가능한 편의점 등장했다.

1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편의점 프랜차이즈 '로손'과 전기·전자업체 '파나소닉'은 지난 12일 오사카(大阪)부 모리구치(守口市)의 로손 파나소닉 본사 앞 지점에 '레지 로보(사진)'를 배치했다.

로봇의 이름은 계산원을 뜻하는 일본어 '레지'와 로봇의 합성어로, 파나소닉이 제조했다. 물건을 담은 바구니에 상품의 바코드 리더기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들은 사려는 상품의 바코드 부품을 이 리더기에 터치한 뒤 바구니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쇼핑을 할 수 있다. 쇼핑을 마친 뒤 바구니를 계산대에 가져가면 터치스크린에 지불해야 금액의 총액이 제시된다.

신발카드 등으로 계산을 한 뒤 바구니를 특정 장소에 놓으면 자동으로 포장도 가능하다. 내년 2월부터는 바코드 리더기 없이 상품을 바구니에 넣기만 해도 자동으로 계산되는 방식도 도입된다.

로손과 파나소닉은 장래에는 스마트폰의 결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편의점에 와서 상품을 골라 집은 뒤 그대로 나가도 자동으로 계산되는 방식도 구상 중이다. /연합뉴스



로손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다만 현재는 잡지나 어묵, 우산 등 일부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돼 점원이 아예 없는 방식으로는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로손측은 내년 하반기 전국 수십 개 점포에 레지 로보를 도입한 뒤 2018년에는 도입 점포 수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점포 운영에 필요한 종업원 수를 현재의 10% 가량 줄이는 게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케카사 사다노부 로손 사장은 "아무리 편의점 직원 모집공고를 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다.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레지 로보 도입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상가 매매 6층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50평 (6층) 천변로 전망 최고 !!!

즉시입주 / 주차완비 / 난방완비

인테리어 최고급 완비(5천만 투자)

★ 차세 1억6천만
매가 1억1천만

※(임대 가능 보2천 월 60만) (용 5천)

010-7384-7800

상무지구 6층 오피스텔 매매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 23평 (투룸 형)
- 상무지구 중심가 / 리모델리 완비
보 500만 월 44만
- ▶ 매가 8천만(용 4천)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전원주택 최고 위치
▶매가 8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열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용 1천6백만)
▶매가 8천 500만
- 전남 광양 광명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전망 좋음, 주변 골목장,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00만,
월 25만(전세 2천5백만 가능)
▶매가 3천 5백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11평) 온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걸어)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열
보증금 500만, 월 42만(용 2천4백만)
▶매가 7천 500만
-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지하 (13평) 숙명여대 1번!
보증금 600만 월 60만
▶매가 1억6천 (용 5천)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서구 금호동 (상가주택)
토 56평 건 75평
1층 (식당), 2층 (주방)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9천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번 (코너지리)
총 료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6억6천



동구 수기동 (2층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 역 2분거리
4차선도로점 / 2층 상가건물
▶감정가 3억 → 최저가 3억



장성군 북하면 (2층 식당)
토 280평 건 253평
식당 최고의 자리 / 백양사 관광지 위치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토 33평 건 146평
12층 중 2층
6차선 도로 점 / 넓은 광장 / 광고 최고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4억

010-6670-9800